「법화경과 신약성서」를 읽고 나서

1세대 불문학(French literature) 학자이자 불교와 기독교문화 연구에 천착하고 있는 민희식 박사가 내놓은 〈법화경과 신약성서〉는 1986년 유네스코(UNESCO)의 지원을 받아 초판을 출간한 책이다. 책표지 제목을 단순히 '법화경과 신약성서'라고 표현하여 불교인과 기독교인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 전반을 고려한다면 '신약성서는 불교에서 차용한 복사본이다'라고 책표지를 바꿔 달 수 있겠다.

기독교의 불교원전 차용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탄생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이후 불교가 서양으로 대거 전파된 점, 기원전 200년경 아소카(Asoka)왕의 포교사 파견, 그리고 예수 자신이 인도에서 불교수행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럼 기독교가 불교원전에서 차용한 50여 가지의 내용들 중 9가지 정도만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불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구원론이 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기독교차용'이란 용어는 독일의 신학·철학자 루돌프 사이델(Rudolf Seydel)이 쓴 『예수의 복음과 석가와의 관계』란 책에서 인용하였다.

출처: https://blog.naver.com/yang0ho/222151453758

① 수태고지(임신사실을 알림)

불교원전: 마야부인은 여덟 가지 계행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채 석가모니를 잉태했다.(마야왕비의 탁태영몽도)

기독교차용: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만 하고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마리아의 수태고지)

② 탄생

불교원전: 아시타 선인(仙人)이 왕궁에 서린 서광(瑞光)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석가에게 경배하고 '장차 부처가 되리라'고 예언했다.(과거현재인과경)

기독교차용: 우리(동방박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아기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장 2절)

③ 세례

불교원전: 석가의 태자책봉식에서 왕이 손으로 태자의 이마에 물을 끼얹고 '그대는 나의 후계자이니라'하고 선언하자 하늘에서 '좋도다! 좋도다!'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연꽃이 피어나고 청작(파랑새) 5백 마리가 내려왔다.(과거현재인과경)

기독교차용: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흰 비둘기가 날아 내려왔다.(마태복음 3장 13~17절)

④ 시험에 듦

불교원전: 마귀가 금식하는 석가에게 음식으로 유혹하자,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음천처럼 기쁨을 양식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했다.(상응부경전)

기독교차용: 마귀가 금식하는 예수를 시험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대답했다.(마태복음 4장 1~4절)

⑤ 물위를 걷는 이적

불교원전: 강 위를 걷는 석가모니(증일아함경 15-2, 본생경 무쌍품)

기독교차용: 호수 위를 걷는 예수(마태복음 14장 22~29절)

⑥ 우물가의 여인

불교원전: 아난존자가 우물가에서 파카티(Pakati)라는 처녀(상종을 기피하는 천민: Matana cast)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자, 그녀는 자신이 천민의 딸이므로 귀하신 분께 물을 떠 바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난다는 자신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빈부귀천 상하의 차별을 하지 않으니 물을 달라고 한다.(마등가녀경: The Sutra of The Matanga Girl)

기독교차용: 예수가 우물가에 앉아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겨 상종을 하지 않던 민족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사마리아 여자임을 들어 물을 떠주기를 사양한다. 예수는 자신은 사람을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요한복음 4장 3~5절)

⑦ 빵과 물고기의 기적

불교원전: 유마거사가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기적으로 신도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유마경 향적불품), 난다가 신도 모두를 떡 한 덩어리로 먹였으니 떡은 여전히 남았다.(증일아함경 20, 28)

기독교차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는 예수(마태복음 14장 17~21절)

⑧ 탕자의 비유

불교원전: '장자 궁자'에서 '궁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된 뜻을 모른 채 미혹에 빠져 중생들로 비유되고, 마침내 불성을 찾아 돌아온 가난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전 재산을 넘겨주는 '장자'는 곧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한다.(법화경 신해품)

기독교차용: '돌아온 탕자'는 곧 이 세상의 죄지은 사람들로 비유되고, 죄를 용서해준 탕자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상징한다. (누가복음 15장 11~32절)

⑨ 가난한 과부의 헌금

불교원전: 불경 '현우경비녀난타품', '본생경', '잡보장경'의 가난한 처녀 난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다.

기독교차용: 가난한 처녀 난타의 헌금 이야기는 윤색이나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신약성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가복음 12장 41~44절)' 이야기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약성서 내용의 대다수를 불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삭제된 예수의 12세 이후에서 30세까지의 생애가 인도에서 불교수업을 받았던 시기로 드러났다. 실제 예수가 젊을 때 간다라 지방에서 마니트라(Mantra) 스님에게서 불교의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에 대해서 배웠으나 그 깨달음의 방법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중들에게 설법할 기회가 없었다. 그 대신 인간은 자기 마음의 단계에 따라 신을 느끼고 접근하게 되며, 그 수행의 단계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구원론이 동일함을 알려주는 예수의 설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노선에 맞는 4복음서를 제외한 수십 종류의 복음서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1945년 이집트에서 콥트어로 쓰여져 있는 도마복음서가 발견되어 그 복음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해독하였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그리고 밖에 있느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신을 알게 되며 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것이오. 이와 같이 참된 자신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식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가난 속에 있고 여러분들 속에 참된 자신도 가난 속에 있는 것이라."

위에서 인용된 내용 중에 '우리들 안에 있는 참된 자신이 곧 천국이다'는 말은 불교의 불성내재론(佛性內在論)이고 또 그 다음에 계속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참된 자신이다'라는 문장은 불교(법화경 방편품)에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부처로 평등해져서(欲令一切衆) 다름이 없게 하려 함이라(如我等無異)'와 뜻이 똑같다.

결론적으로 민희식 박사의 〈법화경과 신약성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평화공존의 장을 연 명저라 아니할 수 없다.*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29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 미륵부처님은 1980년(불기 3007년)에 세상에 나오시는데 양띠로 태어나셔서 50세에 성도(成道)하신다. …

(지난호에 이어)

〈열반경 권 8 (涅槃經 券 八)〉

喩如羝羊 是故名祖
유여저양 시고명조

비유컨대 숫양과 같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조상 할아버지라 한다.

이 역시 부처님의 명호(名號)를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글이다. 비유하자면 숫양과 같다. 이것은 미륵부처님께서 남자의 몸으로, 또한 양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기독교에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그를 가리켜 '어린 양'이라 한다) 또한 그분은 양(羊)띠로 오시는데 곧 인류의 조상격이요, 최고의 웃어른이시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화엄경 권 14 (華嚴經 券 十四)〉

現佛國土莊嚴蔦요 令諸衆生趣向菩提 현불국토장엄위요 령제중생취향보리

현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의 길(부처를 찾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

이는 보살마하살 찬탄 중에 있는 글로서 미륵부처님은 그와 같다는 말이다.

〈화엄경 권 42 (華嚴經 券 四十二)〉

如無熱大池 縱廣五十由旬 無濁無雜 無有垢穢 光色淸淨 淸淨無濁 여무열대지 종광오십유순 무탁무잡 무유구예 광색청정 청정무탁

무열대지와 같아서 종광이 50유순이며 흐림이 없고 잡됨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그 빛이 깨끗하여 조금치도 탁함이 없다.

대도를 통하여 이루면 이와 같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도 전부 비유의 말이요, 영적(靈的)인 말씀인데 대각(大覺)을 이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 상태는 무열대지와 같다고 했는데 무열대지라고 하면 불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로서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큰 못이 어찌나 넓은지 무열대지로부터 사해(四海)로 물이 흘러나간다고 한다.

유순(由旬)이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것도 천기를 누설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거리의 단위를 쓴 것에 불과하다. 부처님의 마음이 무열대지와 같은데 그 넓이가 50유순이라 한 것은 넓이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50이란 숫자에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미륵부처님께서 50세에 성도하셔서 사해(四海)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숨겨 놓은 것이다.

즉 다시 해석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크고 넓으신 마음이신데 그 안에는 조금치도 흐리거나 잡된 것이 없다. 50세에 성도(成道)하셔서 도를 이루신다. 그 마음은 밝은 빛과 같으신 마음인데 청정하여 조금도 흐림이 없다는 뜻이다.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을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륵부처님이 1980년에 세상에 출현하셨다면, 그리고 50세에 성도(成道)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신미생(辛未生) 양띠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화엄경 권 76 (華嚴經 券 七十六)〉

未來世中 彌勒菩薩 放大光明 普照法系 受生神變 미래세중 미륵보살 방대광명 보조법계 수생신변

미래세에 오시는 미륵보살님은 큰 밝은 광명을 넓은 법계에 비추셔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신(神)으로 변화시킨다.

〈화엄경 권 78 (華嚴經 券 七十八)〉

是時衆生 不信醫言 治諸惑重病大醫王 시시중생 불신의언 치제혹중병대의왕

모든 미혹과 중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대의왕이신데 이때 중생들이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서 의사란 미륵부처님을 대의왕(大醫王)으로 비유해서 한 말이요, 그분께서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치유케 하시는데 미련한 중생들이 이를 혹 불신하며, 혹 비방하며 배척할 것이라는 말이다.

〈열반경 권 8 (涅槃經 券 八)〉

若在皮裏膿血不淨 何緣不出
약재피리농혈부정 하연불출

이째서 해탈을 못하느냐? 진실로 피부(皮膚) 속에 피가 썩어서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다.

'불출(不出)'이란 해탈이나 열반을 못한다는 말이다. 어째서 못하느냐 하면, '약(若)'을 여기서는 '만약'이라고 읽지 않고 '진실로'라고 읽는다. 진실로 피부 속에 피가 썩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해탈을 못하는 것이니, 피가 깨끗해야만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미륵부처님께서는 몸속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법을 들고 나오시게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법구경 안녕품에는, 欲度生死苦 當服甘露味(욕도생사고 당복감로미) 「생사의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감로의 맛을 알고 이를 먹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화엄경 78권에는, 爲遭生死苦者 飮以甘露 令基安隱(위조생사고자 음이감로 영기안은) 「늙고 죽고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조가 감로를 마시게 하여 안은(열반)케 하리라」고 하여 어조사 조(遭)를 사용하여 감로를 내리는 자가 조(曺)씨 임을 암시하였는데, 선불가진수어록에는 曹還陽眞人 始知天仙金丹大道(조환양진인 시지천선금단대도) 「조가 양을 되찾아 진인이 되어 천선(부처)의 금단대도(최고의 경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륵진경에도 赦罪天曺求衆生(사죄천조구중생)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라고 했으며, 미륵하생경에는 天曺錄 人間善惡勞心報應(천조록 인간선악노심보응)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선악의 노고를 기록하여 응당히 보답한다.」고 예언하여 구체적으로 조(曺)라는 성씨의 사람을 통하여 감로(甘露)를 내리고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했다.*.